

윤여정 한국 배우 첫 오스카 품다

74세 연기 열정 ...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재치있고 겸손한 수상소감 화제

배우 윤여정(74)이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으며 한국 영화계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 <관련기사 17면>

윤여정은 26일 오전(현지시간 25일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유니온스테이션과 돌비극장 등에서 열린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나리'의 순자 역할로 여우조연상을 품에 안았다. 한국 배우가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아시아 배우로는 '사요나리'(1957) 우메키 미요코에 이은 두 번째다. 특히 이번 수상은 지난해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등을 휩쓸며 세계 영화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기생충'이 이루지 못한 유일한 성과로 의미가 남다르다.

윤 씨는 이번 영화를 통해 30여 개가 넘는 해외 연기상을 휩쓸었고, 미국 배우 조합상(SAG)과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등에서 여우조연상을 석권하며 오스카 유력 후보로 지목됐다. 지난 1년여 동안 다양한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수상 행진을 이어온 가운데, '미나리'가 받은 100여 개의 상 중 30여 개가 윤 씨가 받은 연기상이다. 또한 할리우드의 각종 시상식 결과를 예측하는 골드더비는 그를 여우조연상 후보 1위로 꼽았다.

이날 수상자 호명에는 '미나리'의 제작자인 A 24를 설립한 배우 브래드 피트가 직접 나섰다. 윤 씨는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호명된 후 무대에 올라 "드디어 브래드 피트를 만났다. 우리가 털사에서 영화를 찍을 때 어디 있었나?"는 농담을 던져 웃음을 줬다. 이어 "아시아에서 나는 한국에서 왔고, 윤여정이다. 유럽 분들은 제 이름을 여영이나 유정이라고 부르곤 하는데, 오늘날은 여러분 모두 용서해드리겠다"고 해 다시 한번 웃음을 안겼다.

윤 씨는 아카데미 관계자와 '미나리' 가족들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스티븐 연, 정이삭 감독, 한예리, 노엘, 앨런 등을 차례로 부르며 우리는 모두 가족이 됐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정이사 감독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 우리의 선장이자 나의 감독이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두 아들과 김기영 감독에게 감사를 전했다. 윤 씨는 "두 아들이 항상 저에게 일하러 나가라고 잔소리를 한다. 열심히 일했더니 이런 상을 받게 됐다"며 "김기영 감독은 나의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열린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74)이 트로피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첫 번째 영화를 연출한 첫 감독님이다. 살아계신다면 수상을 기뻐해 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93회 아카데미 작품상은 클로이 자오 감독의 '노매드랜드'가 차지했으며, 여우주연상도 '노매드랜드'의 프란시스 맥도맨드가 받았

다. 남우주연상은 '더 파더'의 앤서니 홉킨스가 수상했다. '미나리'는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등 6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지만, 여우조연상 외 수상에는 실패했다.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 호프집발 코로나 확산세

대학 기숙사·병원으로 n차 감염
관련 확진자 14명으로 늘어
병원 확진자는 백신 접종 후 양성

광주에서 호프집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학 기숙사와 대형병원으로 번지면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남구 호프집 관련 확진자는 14명까지 늘었다. 지난 22일 호프집 방문자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 검사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현재까지 1434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56명이 자가 격리됐다. 확진자 중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대학생, 병원 관계자(4명)가 포함돼 있어 해당 시설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들 시설은 일시 폐쇄됐으며 전수 검사가 진행 중이다.

확진된 병원 관계자 중 3명은 백신 접종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다. 이들 중 2명은 병동에서 지난 24일까지 근무했으며, 앞서 지난 14일 지역 집단감염지로 추정되고 있는 남구 모 맥주집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방역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예방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확진판정 전 10여일 동안 병원 근무 등을 통해 입원환자와 의료진 등과 접촉했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접종한 확진자 중 10% 정도는 접종 후 항체 형성이 늦거나 안되기도 했다. 2차 접종까지 마치고 2주까지는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 지역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 이날 추가된 확진자 3명 모두 증상이 나타나고 선별진료소를 찾았다고 확인됐다. 사망자도 추가됐다.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고 조선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80대가 전날 숨져 광주 22번째 사망자가 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성운·김오수·양부남 포함

법무부, 추천위에 명단 전달
천거 후보 모두 심사 대상

법무부가 26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명단을 추천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위원들에게 검찰총장 후보자 10여명에 대한 심사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민 천거 기간에 추천된 인사 모두를 심사 대상으로 올렸다. 법조 경력 15년 이상만 되면 누구나 천거 받을 수 있다.

검찰 내에선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구본선 광주고검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한동훈 검사장, 임은정 대검 검찰정책연구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검찰 출신으로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천위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천거된 10여명 전원의 심사 자료를 보냈다"며 "장관이 일부 명단을 골라서 보낸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했다.

추천위원들은 이들 심사 자료를 미리 살펴본 뒤 29일 회의에서 3명 이상을 선택해 박명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권과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새 총장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신재생에너지 사업 옅히고 설친 갈등 ▶6면

굿모닝 예향 - 함평 힐링·먹거리 여행 ▶18·19면



KIA, 타선이 살아야 마운드로도 산다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전라남도와 중앙정부, 에너지공기업 한전이
'공공형 특수대학', 세계 top 10 공대로 키우겠습니다



<p>강소형 대학</p> <p>전력·에너지 분야 선택과 집중의 작지만 강한 대학</p>	<p>연합형 대학</p> <p>다자간 자원/역량의 공유·집적을 통한 산학협력 대학</p>
<p>글로벌 대학</p> <p>국가와 지역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적 가치창출 대학</p>	<p>미래·혁신 대학</p> <p>기존 대학 교육모델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학</p>

세계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 2022년 3월 개교